

한국 건축, 좀 더 재미있어지면 안될까요?

Could it be more interesting, Korean architecture?

우리 현대건축의 명소라는 헤이리에 갔을 때 세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지나가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헤이리의 여러 집들이 모두 한 건축사가 설계한 것 아니냐고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건축사도 모두 다르고, 집들의 형태도 모두 다르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설계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맨살콘트리트와 유리, 나무로 덧댄 외피 처리 같은 부분이 엇비슷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건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유사점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건물을 볼 때입니다. 각 구청들은 저마다 자기 건물이 다르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로서는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건물 윗부분은 모두 통유리이고 한쪽 벽은 비스듬하게 누이고, 아래 입구부분은 철기둥 또는 돌 기단부 처리하는 공식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건축을 취재하는 기자로 일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건축주와 건축사의 서로 다른 시각 차이의 문제입니다. 건축사들은 건축사가 아무리 좋은 구상을 가져와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건축주들의 수준을 늘 비판합니다. 발전한 한국 현대건축의 가능성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뻥한 스타일의 건물만 고르다고 이야기 합니다. 또한 한국 건축사들보다 이름만 앞세운 외국 건축사들을 선호하면서도 정작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습니다.

건축주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건축사들은 정말 건축주를 사로잡는 구상을 보여주기도는 자신들만의 건축관을 내세운다, 말은 그럴듯한데 와 닿지는 않는다는 반응들을 많이 보입니다.

양쪽 말이 모두 진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양쪽이 만들어낸 건물을 보는 저로서는 그런 지당한 이야기들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들 똑같이 보이니까요.

건축사들이 건축주들의 무리하고 몰이해한 요구에 따른 제약에서 벗어나 최대한 마음껏 했다는 헤이리인데도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이 한 것처럼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구청들이 각 구의 철학과 대민 봉사 정신을 담고 구현해지었다는 구청 건물들은 무슨 공식을 따라 지은 듯 닮아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건축에서 가장 결핍된 부분이 개성과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사와 건축주 모두 정말 재미 있고 쿨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주 여러분, 무엇을 형상화했다는 식의 의미를 건축사들에게 강요하지 않으 시면 어떨까요? 한국인의 춤사위를 지붕에 엮고, 광주민주화운동이 5월18일이니 광주시청사를 18층으로 정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정말 스스로에게 와 닿고 재미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님들, 정제된 언어로 미니멀을 추구하면서도 스킨에 변화를 줬다, 보이드와 솔리드가 어떨다, 형태 이전에 기능을 생각했더니 절로 디자인이 나오고, 외부와 내부를 이어 한 공간으로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건물들은 왜 그리 비슷한가요.

거리를 오가며 건물을 바라보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 건물이 심심한 듯 보여도 자주 보니 볼 구석이 많아 새롭게 느껴지면 좋겠고, 비슷비슷한 건물들 사이에 조금 튀어도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건물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건축은 정말 접점이 많습니다. 건축은 역사와 예술, 디자인과 도시와 이어집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건축 아 닌가요? 거창한 단어들이 나와도 결국 건물에 재미가, 매력이 담기고, 그래서 건물에서 이야기가 피어나면 좋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건축이 재미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물들,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재미는 없습니다. ■



구본준 / Goo, Bon-joon
한겨레 대중문화팀장

- 한겨레 기획취재팀장
- 한겨레 기동취재팀장 역임
- 《한국의 글쟁이들》, 《별난 기자 본
본 우리 건축에 뭉 빠지다》 지음